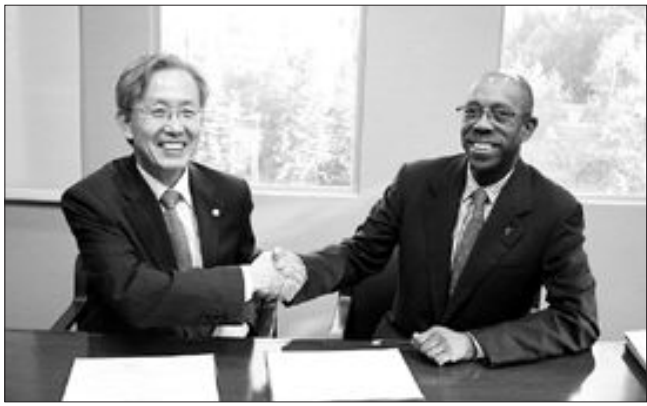


재광문태중·고 동문회 신년 인사회



재광문태중·고 동문회(회장 오형원)는 지난 16일 광주 아이리스 웨딩홀에서 박지원 국회의원·박광태 광주시장 등 동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전남대-美 어바인주립대학 협정 체결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주립대학에서 마이클 드레이크 총장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했다.

광주여대-中 북경경무연수대학 협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정원)는 최근 중국 북경의 북경국제경영무연수대학(원장 유 웨)을 방문, 상호우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신안군-교육청 장산초교 강당 건립 협약



신안교육청(교육장 나연수)과 신안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총 사업비 16억 9천만원·부지 760㎡)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목포 오거리 문화·예술 되살리기 나선 예술협회 박득규 사무처장

“佛 몽마르뜨르 뛰어 넘는 도심속 문화마을 만들겠다”

“한국 예술의 중심이 되고 프랑스 몽마르뜨르를 뛰어넘는 오거리문화마을을 만들겠습니다.”

1970~80년대 목포시 문화·예술의 부흥을 이끌었던 오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술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등 전문 작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12월8일 오거리문화예술협회를 만들어 오거리의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거리문화예술협회 박득규(45) 사무처장은 “오거리는 목포의 심장이다. 이곳이 살아 숨 쉬지 않으면 목포의 미래는 없다”며 “시골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문화마을이 아닌 도심 속 문화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북원동의 오거리는 1970~80년대 목포의 중심가로, 문화·예술의 산실이었다. 김지하, 차범석, 고 은 선생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오거리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문화의 중심지였다. 작가들은 오거리의 다방에서 작품을 내거는 등 창작활동을 했고 매일 선술집에서는 토론과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활동한 한 해보지 못한 예술가들은 대접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조성된 하당 신도시와 최근 형성된 옥암·남약신도시에 밀려 이제는 ‘원도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현재 오거리에서는 화가·음악가·서예·도예가 등 40명이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경우 한국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면 목포의 오거리는 작업실과 전시장은 물론 다양한 창작활동이 자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심 속 문화마을의 모범사례가 되기 충분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오거리의 모습은 ‘도심 속 문화마을’이다. 일제시대 일본 사찰로 지어졌다가 해방 후 교회로 사용됐던 옛 동본원사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오거리문화센터’로 거듭났다. 그림 전시와 체험 공간인 오거리문화센터 주변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중견 화가들의 개인 화실을 비롯해 갤러리, 미술학원, 화랑 등 30여 곳이 동지를 틀고 있어 이미 문화마을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 문화센터도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곳이 아닌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을 위해 개방시켜 놓아 누구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오래 침체의 길을 걸어내고 예술인과 시민이 손잡고 화려했던 오거리의 문화·예술 전통을 되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가꿔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오거리문화예술협회 박득규(사진 오른쪽) 사무처장이 최근 목포 오거리문화센터를 찾은 한 학생의 체험 활동을 도와 주고 있다.

생보자 할머니가 씌웠던 모아 장학금 기탁

진도 의신면 이공심 할머니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친 한이 남아서요” 한겨울 한파에도 전기장판에 의지해 사는 팔순 할머니가 수년간 씌웠던 돈을 모아 만든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맡겨 감동을 주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직원들은 최근 이 지역에 있는 한 사찰 주지로부터 만원짜리 100장 한 묶음을 받았다. 이 주지는 “한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 직접 올 수 없어 대신 전달하도록 한 돈”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당부하고 돌아갔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기탁자가 의신면 진설리에 사는 이공심(83) 할머니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의 인사라도 전하러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할머니는 16.5㎡(5평) 단칸 방에 보일러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역시 형편이 어려운 3남 2녀 자녀가 보내준 용돈을 1천원, 5천원씩 모아 100만원이 되자 꼬깃꼬깃한 돈을 전달했고, 이 돈을 받은 주지가 만원권으로 환전해 면사무소에 맡긴 것이다.

이 할머니는 “아들의 중학교 학비를 주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눈을 흘렸던 기억이 뚜렷하다”며 “나도 못 배웠지만, 특히 어려웠던 시절 5남매를 키우면서 제대로 입히지도, 가르치지도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소중한 돈을 할머니의 뜻대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 박현경기자 hypark@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가들 모인다

1억이상 회원 27일 한자리에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하는 부자들이 이날 말 한자리에 모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27일 또는 28일 1억원 이상을 쾌척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모이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

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7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자리에서 나눔 참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08년 5월 남한봉 유니스코리아 회장을 시작으로 그동안 17명이 공개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홍명보

현영

직업별로는 방송인 현영, 홍명보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외한 15명이 모두 기업인이다. 기업인은 건설업 종사자가 6명이고, 대기업 총수로는 최신원 SKC 회장이 유일하다.

보해양조 사랑 나누미

새해 첫 봉사활동 펼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 ‘젊은 앞 새 사랑 나누미’ 봉사단 70여명이 지난 16일 광주와 순천, 서울지역에서 새해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지역 봉사단은 이날 오전 광주시 남구 ‘사랑의 식당’을 찾아 600여명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 활동을 벌였으며, 오후에는 ‘행복재활원’을 방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시간을 가졌다. 순천지역 봉사단은 광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정욱기자 jwpark@

인사

◆법무부

◇서기관 정보 ▲광주보호관찰소장 김인상 ▲전주보호관찰소 산산소장 장장봉 ▲광주소년원장 고봉용 ▲전주소년원장 이오영 ▲광주소년원 서무과장 하민복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환 ◇보호사무관 정보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영철

◆수협중앙회

◇지도사업 부문(팀장 승진) ▲전남서부공제보험지부장 이준서

▲전남동부공제보험지부장 홍철기

◆해남군 ◇4급 승진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정돈 ◇5급 승진 ▲가족복지과장 이상국 ◇5급 전보 ▲행정지원과장 김홍길 ▲계곡면장 이효용 ◇5급 승진교육 대상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정관 ▲북일면장 직무대리 이광온 ▲건설방재과 농촌개발 담당 운영대

내방

▲최희동(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씨

장승우 전 해수부 장관 별세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후 6시께 지방으로 타계했다. 향년 62세. 장 전 장관은 광주 출신으로 경기도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7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거쳐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통계청장, 해수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2008년 3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됐으며, 지난해 4월

건강이 악화돼 사표를 낸 뒤 조직위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노인자씨와 아들 재호(페어차일드 반도체)씨, 하운(동원산업)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10시. 02-3010-263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월례모임=22일(금) 오후 7시 동구 계림동 계림수산회복지관. 016-611-2858.
▲목포대학교 총동문회(회장 허정민) 2010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22일(금) 오후 6시30분 장승목포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 061-284-5064.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로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 리화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donggf.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괴로운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탐정형외과 외 베네슈. 062-266-665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모집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자원자격을 대학 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풍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미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

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휴폐선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cj.kr 또는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색스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분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풋볼프 회원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풋볼프장. 010-4604-4608.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할,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모집=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흥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박상섭씨 별세 명령(동신대학교·진우(천주)성요한병원)·혜영(밝은마음신경정신과)씨 부친상 맹은정(전대사대부중)·이지영(광주송원고)씨 시부상 이형우(동림아름다운피부과)씨 빙부상=발인 18일(월) 조선태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사재덕씨 별세 이영재·종현·갑순·이순·정남씨 모친상=발인 18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정병희씨 별세 광연·경연·재연·희연·안순·애순·소연씨 부친상 오순남·영숙·영미씨 모친상=발인 18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순례씨 별세 강원배(안도 고교 교장)·호진·영욱·근애·옥임·영임·혜임·종임씨 모친상=발인 19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남기중씨 별세 창용·승용·순용·상용·순욱·숙현·은숙씨 부친상=발인 19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신옥순씨 별세 김익수·대수·성웅·성준씨 부친상=발인 18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두번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신진국영 프리드 (신) 현대중일상조. 가임폰 1566-4499